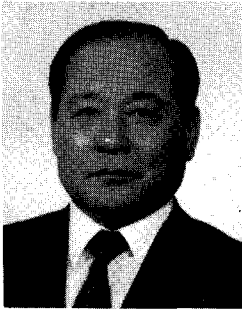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林業發展을 祈願하며

鐵道廳長 崔 杻 旭



尊 敬하는 權五振 회장님  
그리고 韓國篤林家協會員 여러분!

壬申年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健康하시고 家庭에도 행복이 넘치기를 祈願합니다.

저는 지난해 12月 政府人事發令에 따라 1년이 넘도록 몸담았던 山林廳을 떠나 鐵道廳長으로 轉任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 여러분께 드리지 못한 人事를 이 紙面을 통하여 대신하게 됨을 매우 悚懼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山林廳長으로 在任하고 있는 동안 山林行政을 올바른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여러가지 高見과 忠告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지금 이 時間에도 感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機會가 있을때마다 드린 말씀이지만 山林과 林業에 대한 아무런 專門知識이 없는 사람이 山林行政을 맡았을 때는 많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禁할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林業界·林學界의 여러분과 특히 篤林家 여러분의 값진 말씀들은 당시 山林行政을 遂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問題點의 認識과 接近方法, 思考의 角度와 領域을 넓히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山林廳長으로 在任時 山林行政과 林業이 안고 있는 問題點과 앞으로의 政策課題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을 整理하여 研鑽會·學會·세미나 심지어 大學의 講壇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林業發展이 새로운 次元으로 跳躍하기를 祈願하는 뜻에서, 우리 林業現實과 將來, 林業人의 役割과 責任에 대한 所見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林業發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헤아려 주시고, 널리 理解해 주시면 感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林業政策分野나 林業에 從事해온 분들이 너무 나무만 보고 나무에만 置重해 왔기 때문에 山林이나 林業에 대한 全般的이고 폭넓은 眼目이 不足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멀리 보다 넓게 내다보는 視野를 가져야 되리라 봅니다.

둘째는 山林에 대한 分명한 哲學이 確立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分野에서나 哲學이 確立되어 있어야 그 分野에서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한 方向이 定立되고 이를 바탕으로 힘차게 밀고 나가는 推進力이 생긴다고 봅니다.

山林과 함께 生活해온 先祖들의 歷史的인 傳統과 山林文化·山林思想을 體系적으로 整理하여 山林에 대한 哲學을 定立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林業經濟에 대한 研究와 이 分野의 人材養成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林業을 經濟性이 있는 産業으로 育成하기 위하여는 經濟에 대한 基礎資料와 統計의 集大成은 林業政策樹立과 林業經營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事實 이러한 基礎的인 바탕이 없이는 未來에 대한 豫測과 展望, 計劃의 樹立, 政策이나 經營의 推進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林業經濟에 대한 研究와 더불어 이 分野의 人材養成에도 많은 努力과 投資를 꾸준히 해나갔으면 합니다.

넷째는 山林投資에 대한 經濟性分析과 科學的인 經營方法을 提示하므로써 山主의 自發的投資를 誘導해야할 것 입니다.

특히, 大面積 山林을 管理하고 있는 篤林家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投資에 따른 經濟性을 考慮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效率的인 投資와 收支맞는 林業을 할수 있도록 經營모델의 開發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다섯째는 우리의 與件에 맞는 좋은 樹種을 改良하는 問題입니다.

樹種을 改良하는 研究는 一般農作物과는 달라서 長時間이 걸리고 끈질긴 努力이 必要한 分野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分野일수록 서둘러서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針葉樹이든 闊葉樹이든 地域마다의 地形·土壤·氣候條件에 맞으면서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 經濟性이 있는 樹種의 改良과 開發에 더욱 努力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過去에는 針葉樹 爲主의 研究가 되었을뿐 아니라 또한 外國樹種을 導入하여 適應試驗을 繼續하여 왔으나 適合한 樹種을 찾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地域與件과 氣候풍토에 맞는 郷土樹種을 開發하여 普及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째는 造林·育林의 方法과 技術에 대한 問題입니다. 그간 造林은 大面積 爲主로 10年·20年 자란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갓나무나 낙엽송을 造林하였으나 앞으로는 造林地의 與件과 現在의 立木狀態를 充分히 考慮하여 이에 맞는 造林方法과 技術을 開發하여 小面積 造林, 樹下植栽(複層林 造成), 萌芽更新, 天然林保育등 多樣하게 해 나가는 것이 經濟的 造林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育林에 있어서도 새로운 技術開發, 實行上의 問題點과 그 解決策에 대한 多角的인 研究와 實行이 뒤따라야 할것 입니다.

또한, 造林·育林은 山林의 蓄積을 늘리는 方向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賢明하다는 것을 強調하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山林廳長으로 在任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간 治山綠化의 成果를 높이 評價하는 反面에 우리나라에는 '山林은 있으나 林業은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林業이 産業으로서의 제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일곱째는 産業化·都市化에 따라 새롭게 浮刻되고 있는 環境林業의 創出로 快適한 生活環境造成과 休息空間을 提供하는 데에도 더욱 力點을 두어 推進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林業이 이렇게 停滯된 데에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山林이 주는 惠澤만큼 山林에 대한 投資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林業投資와 林業을 促進하기 위한 山林政策開發과 推進에도 未洽한 面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林業이 山林資源의 增殖·育成을 通하여 國家經濟發展과 國民福祉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면 山林政策은 나무와 땅 즉, 山地와 이를 經營하는 사람까지를 포괄하는 綜合的이고 合理的인 政策 즉 保存과 開發이 調和를 이루는 山地利用政策, 山林經營人 특히 篤林家들이 希望을 가지고 經營에 專念할 수 있는 政策이 꾸준히 開發되고 推進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山林所有規模의 零細性, 林道·機械化 등 林業經營基盤의 脆弱, 林業生産性의 低調, 林產物流通構造와 같은 根本的인 林業의 構造의 問題도 林業分野에서 해나가야 할 主要한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林業에 대한 希望과 可能性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山林과 林業에 대한 國民意識의 轉換, 國際的인 林業動向과 與件, 다른 나라와 比較하여 林木生長率이 높다는 點, 많은 林學徒가 養成·輩出되고 있다는 點, 統一이 되면 林業分野에서 할일이 더욱 많아진다는 點등의 現實與件을 잘 살린다면 우리의 林業은 얼마든지 發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林業發展이야말로 林業인 모두에게 주어진 至上課題라는 것을 깊이 認識하고 林業人 스스로 林業을 살리고자 하는 강한 意志로 自求的인 努力을 해 나간다면 治山綠化를 이룩할 때 보여준 國民的 呼應과 聲援은 반드시 되살아 나리라고 確信합니다.

韓國篤林家協會의 無窮한 發展과 새해에도 會員여러분의 家庭에 언제나 健康과 幸運이 깃드시기를 祈願합니다.★